

# 작은도서관 큰 불편

## 광주시, 연 13억 들여 전국 최초 추진 ... 43곳 중 40곳 취재해봤더니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작은도서관' 사업이 곁돌고 있다. 지역민들이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책임에도, 사업 규모 확장에만 치우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다.

광주시가 도심 곳곳에 조성한 공립 작은도서관 43곳 중 40곳을 취재한 결과,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자리 잡기는 커녕, 제대로 이용할 수조차 없어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노인들엔 '그림의 떡' =광주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만 거창했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관이 적지 않았다.



### ■ 광주시내 작은도서관 부실 운영 실태

4층 옥상에 설치...장애인·노인 접근 못해 난방 안돼...차기엔 바닥 덜덜 떨며 책읽기 개방시간 맘대로...오후1시 지나도 문 잠겨 책 뒤죽박죽...사서도 못 찾아 대출 불가

북구 오치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4층 옥상에 임시 건물로 마련돼 장애인과 노인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예산이 없다 보니 엘리베이터 등은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 광산구 도산동 주민센터 3층에 꾸며진 작은도서관도 미로처럼 꼬여있는 좁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만 이용할 수 있다.

둘러본 40곳의 공립 작은도서관 중 계단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계

24곳에 달한다. 광주시의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깜깜하고 추운 도서관 누가 갈까 =지난달 찾은 광주시 동구 지원 2동 작은 도서관의 경우 난방이 이뤄지지 않아 2명의 여중생은 모포를 깔고 책을 읽고 있었다. 남구 효덕동 작은도서관에서 만난 초등학생은 얼음장 같

은 도서관 바닥을 피해 의자에 앉아 양반다리를 하고 책을 읽었다.

광산구 송정도서관이나 북구 두암 3동 작은도서관은 불을 꺼놓아 이용자들이 해가 비치는 곳으로 옮겨 책을 읽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 운암 2동과 운암 1동 작은 도서관은 아예 독서 공간조차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민원인 대기실에서 책을 읽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서구 양동, 광산구 나들드리책방, 북구 매곡동, 운암3동, 신안동 작은도서관은 불도 꺼놓는 경우가 적지 않고 난방도 안돼 시민들에게 외면받은 지 오래다. 사서는 기대할 수조차 없었다.

지난달 찾아간 용봉 도서관과 오치 2동 작은 도서관은 운영 시간임에도 문이 잠겨 있었고 다음날 오후에도 용봉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둘 도서관에서 '주 5일 이상, 하루 8

시간 개방'이라는 운영 시간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다.

이모(34·광주시 북구)씨는 "작은 도서관이 좋고, 어둡다는 생각에 쉽게 찾아가기 어렵다"면서 "편하게 생각하는 곳은 못된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사서를 맡다 보니 책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흥 2동 도서관에서는 사서에 '자기혁명'이라는 책을 찾아달라고 했다가 끝내 찾지 못해 "다음에 방문해달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서야 했다.

한편, 광주시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2억8000만원, 지난해 12억9600만원 등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후 집중 투자 도서관을 선별하고 내실을 다질 것"이라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사표 내고도 "폐업 퇴사" 취업 속이고 "실직 상태" 불법 실업급여 '철퇴'

## 광주경찰, 51명 적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도 폐업 등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25)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 12월 광주 하남 산단 한 업체에서 일하면서도 전직장이 폐업해 실직상태인 것처럼 꾸며 3개월분 실업급여 5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49·여)씨는 전남 모 대학

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2개월분 실업급여 1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51명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1억7000만원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지만 폐업 등 회사사정 때문에 비자발적(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다. 실직자의 고용 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을 고려해 90~240일간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의 50%(1일 상한 4만원)가 지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화 여수공장서 폭발사고 인명피해는 없어

5일 오전 11시50분께 여수시 신월동 한화 여수공장 습상유치고(높이 25m·높이 3m)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폭발로 유치고 1동이 소실됐지만 4m 가량의 방호벽으로 둘러싸여 추가 피해는 없었다. 사람이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다.

유치고는 물에 담겨 켈 형태의 기폭제를 임시보관하는 창고로, 폭발 당시 기폭제 18kg가량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친환경농산물 허위인증 주도 前 장성부군수 징역 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5일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장성군의 박모(60) 전 부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환경 관련 업무 담당 장성군 공무원 선모(60)씨에게 벌금 2000만원, 인증기관 관계자 남모(71)씨와 최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에 선고했다.

/\*연합뉴스



원룸촌 불법 쓰레기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5일 북구 용봉동 원룸 밀집지역에서 불법 투기한 각종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고 있다. 북구는 이날 쓰레기 상습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대청소를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유명 생고기 식당 젓소고기 한우로 속여 팔았다

### 2억6천만원 ... 업주 징역형

대량의 젓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광주의 유명 생고기 전문 식당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종석 판사는 5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

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5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장기간 젓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고 판매 규모나 부당 이익도 상당히 크다"며 "서씨의 행위는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권위에 가까워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2012년 1월 초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상가내 식당에서 젓소고기 2억6000여만원 어치의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에 적발돼 검찰 조사단계에서 구속됐다. 이 식당은 1995년에 문을 연 뒤 생고기 전문점으로 명성을 얻어 허름하고 넓지 않은 내부에 공무원 등 단골손님들로 넘쳐나는 곳으로 유명하다. 식당은 영업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행인 치고 뺑소니 잡고 보니 경찰관

### 남부경찰, 음주여부 조사

광주남부경찰은 5일 술자리에 참석한 뒤 귀가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행인의 손목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광산경찰서 수관지구대 김모(42)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4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인근 도로에서 남부경찰서 송모(32) 경사의 차량을 밟고 가다 행인 이모(여·30)씨의 손목 부위를 차량 후사경으로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사고 30분 뒤 112에 뺑소니 혐의로 신고했지만 김 경위는 휴대전

화를 꺼놓고 있다. 5일 오후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경위가 송 경사 등과 모임에 참석했다가 송 경사를 대신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며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경위는 경찰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고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정도 등을 감안,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김 경위가 사고 뒤 음주 운전으로 인해 고의로 조사를 회피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송유관 기름 흘치려 땅굴 80m 파다 '덜미'...작업비만 날려



○송유관에서 기름을 흘치려고 '작업비'로 수천만 원 써 80m에 이르는 땅굴(가로·세로 1m)을 파던 일당이 경찰에 달뼨다.

○이모(48)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순창군 풍산면 한모(62)씨의 축사를 빌린 뒤 130m 떨어진 도로 밑에 설치된 송유관(지름 20

cm)까지 땅굴을 파가던 중 유사 사건을 수사하던 여수경찰에 적발.

○이들은 송유관에서 경유·휘발유·항공유 등을 빼내기 위해 4000만 원을 파던 일당이 경찰에 달뼨다. 파낸 흙을 나르기 위한 레일을 설치하는 등 '공'을 들었는데 도중에 적발돼 돈만 날리고 허탕.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투자하라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대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 / 76.42㎡
2층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 (±179.43평)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 (±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 216.87㎡ 582.45㎡
5층	아스태어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KHSA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